



# 2012 엑스포 여수로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실사가 9일 시작되면서 여수 현지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일 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열린 '해양수산인 결의대회'에 참가한 해경 방재정이 멋진 해상 분수쇼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개최 당위성을 각인 시켜라

### ■ BIE 실사 포인트

주제·목표·기여도·기대효과 중시  
방문객수·관심도·준비상황도 점검

9일부터 시작되는 2012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 실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발전의 기폭제와 국가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관문인 실사 결과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에 보고돼 오는 12월 개최지 결정 투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모로코(타헤르 4월 30일~5월 4일), 폴란드(브로츠와프 5월 14~18일) 등 유치 경쟁국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되는 여수박람회 현지 실사는 그만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최 당위성 높여야=실사단이 점검하는 분야는 크게 14개 항목에 61개 세부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분야 점검 대상은 ▲개최 당위성 ▲구체적인 개최 방법 ▲준비상황 등으로 대별된다.

가장 먼저 실사단은 유치 이유와 효과 등을 포함하는 박람회 개최 당위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박람회가 어떤 주제로 개최되며 지역이나 국가, 인류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꼼꼼하게 챙겨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2012 여수박람회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큰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지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 최근의 세계적 화두와 맞아떨어진다. 이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람회 주제와 목표에 대한 세부 조사사항은 9개로 전체 14개 항목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실사단이 이 분야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반증한다.

박람회 관람이 예상되는 방문객 수와 어떤 사람들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이 항목에는 7개의 세부사항이 배정돼 실사단의 체 크를 받게 된다. 박람회 방문객 수와 관심도가 대회 성패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람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지도 중요 조사 대상이다. BIE 실사단은 유치국가가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최도시의 지리적인 장점, 개최지와 지역 및 외국과의 교통, 방문객들의 이동에 따른 편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도 박람회를 위한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지와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간 및 주제와 관련된 컨벤션, 세미나 장소 및 장내 매장확보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개발과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도 실사단이 눈여겨 보는 포인트다. 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내 정치적 지원, 경제적 여력, 사회구성원의 동의 또한 실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지역주민 열기도 중요 변수=9일 일국하는 실사단은 10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중요 인사와의 면담과 분야별 준비 계획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유치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11~12일에는 개최후보지인 여수에서 행사 예정부지와 현지 준비진적 상황을 직접 살피게 된다. 개최후보지인 여수지역 주민들의 유치 열망이 얼마나 높고, 실제 대회 예정지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이번 실사의 핵심부분이다.

실사단이 살피는 것은 정부 차원의 유치 준비 못지않게 여수 현지의 유치 열망이다. 따라서 현지 주민의 뜨거운 유치열기와 대화를 치를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태세가 2012 여수박람회 개최권 확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 BIE 실사단 점검 내용

항목	세부사항	항목수
1	박람회의 주제 및 개막일과 폐막일	3
2	박람회 개최 이유, 주요 결과	1
3	국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3
4	박람회의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주제와 목표	9
5	주제 개발: 주제 및 이들에 대한 해석, 소주제가 표현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2
6	BIE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주최국의 입법, 재정적 방안	6
7	박람회 홍보를 위한 광범위한 홍보전략	4
8	개최도시 및 지역의 전반적 위치 및 장점	5
9	박람회 개발 관련 계획 및 사후활용 방안	5
10	예산되는 참가자 수와 외국 참가자들의 전신관 건축 계획	4
11	박람회 관람이 예상 방문객 수 및 그 유형	7
12	박람회 방문객 및 스태프를 위한 숙박시설 계획	4
13	예산, 자원 조달방법 타당성 계획	2
14	전시 참가자 예상 소비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지표	6
합계		61

### '엑스포 관광열차' 탑승 전국서 320명 여수 방문

2012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 열원을 실은 '엑스포 관광열차' 탑승객이 지난 7일 여수박람회 후 보지를 돌며 대회 개최를 기원했다. 전국에서 참여한 320명의 엑스포 관광열차 여행객들은 이날 여수를 방문해 해안과 섬 등을 관광하며 여수박람회 유치 열기조성에 힘을 보탰다.

2012 엑스포 관광열차는 세계박람회 유치공감대 확산을 위해 2만 120회 여수 방문객을 위해 2만 120회 여수를 관광한 가격적인 프로그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6 짚, 무풍지대 아니다

# 美·中 완전개방 '호시탐탐' '경쟁력 재무장'만이 살 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주역인 김종훈 한국축 수석대표는 협상이 끝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쌀개방을 요구했다"는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협상에서 쌀만은 지키겠다고 배수진을 친 한국과, 한국 쌀시장까지 완전개방하려는 미국의 대충돌 때문에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상황이 전개됐음을 짐작케 했다. 또 미국의 요구는 비록 이번 FTA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쌀시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와 함께 언제라도 쌀시장 완전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쌀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완전개방은 농업 전반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쌀 시장 부분개방에 따라 미국산 수입쌀에 부과되는 현행 관세는 5%. 이 규정에 의해 수입된 미국산 칼로스쌀의 공매 가격은 20kg 한 포대에 3만1천320원이다.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같은 양에 4만원선인 국내산 쌀의 78%에 그치는 것이다.

이같은 실정에서 한미 FTA품목에 쌀이 포함되면 양국간 관세가 철폐돼 미국쌀의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또 중국산 쌀의 공매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아 앞으로 거론될 한·중 FTA에서 쌀이 포함되면 한국농업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미국 마지막까지 쌀 개방 요구"

한국 농업에서 쌀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우선 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소득원이다. 뿐만 아니라 쌀은 한국 농촌을 지탱해온 '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특정국가와의 FTA에서 완전개방이 이뤄질 경우 밀어닥칠 피해는 심각하다.

더욱이 전남은 한국 쌀산업의 본산이다. 연간 우리나라 쌀 생산량 468만t 가운데 전남은 20%에 해당하는 89만t을 생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완전개방하면 전남은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등에 쌀시장을 부분 개방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주정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미국·중국·태국산 수입쌀의 반입이 허용돼 우리나라 쌀시장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쌀이 완전 개방되면 한국쌀은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된다. 또

### 고품질·유통체계 선진화 시급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업대국으로 철저한 기업식 농업을 통해 쌀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80%는 활기가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열, 이같은 여건 때문에 미국 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 쌀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자체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순수하게 쌀만을 수출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발아현미 등 기능성 쌀이나 쌀 가공제품의 수출은 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국 쌀 시장. 우리 쌀 산업이 높은 품질과 선진화된 유통체계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라도 FTA의 매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넙자니 투자 분산, 안 넙으면 타지역 반발

## 서남권 특별법 '등字' 신경전

서남권 지역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서남권 특별법)과 관련, 특별법안의 명칭에 '등'자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남권 특별법안의 명칭에 '등'자가 포함된다면 서남권 특별법은 목표와 무안, 신안은 물론 해남, 영암, 영원의 요급으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를 관광한 가격적인 프로그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서남권에만 개발 지원 및 투자 유치 인센티브가 제공되느냐는 것이다.

당초 서남권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국회 입법으로 전환한 정부 입법에서는 타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서남권 특별법의 명칭에 '등'자의 포함 여부는 입법을 맡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 발 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해남, 진도, 영암군 등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특별법안의 명칭에 '등'자가 빠질 경우 특별법은 무안, 목표, 신안만을 지원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보건복지부 시험관아기 시술 지정기관 불임증·습관성 유산·복강경 수술

## 산부인과·내과·종합검진 전문병원

시엘병원은 여성에 관련된 모든 질병을 연구하며 불임/습관성 유산·시험관 아기 시술 전문병원입니다.

산부인과	내과	종합검진센터	영상의학과
산모교실 운영 가족분만	간염 클리닉 갑상선 질환센터	무통 위·대장 내시경 CT(컴퓨터 단층 촬영)	마취과

